

# 태국 그리스도교회의 사회개발 및 사회적 단위(SDSU-CCT)에서 행하고 있는 유기농업체제

누타퐁 마네코른(Nuttapong Maneekorn)

## 태국의 농업 상황

태국의 농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엄청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격도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농지 면적으로는 세계 48위이지만, 살충제 사용율은 세계 5위이며, 제초제 및 호르몬제 사용은 세계 4위로 보고되었습니다.

태국은 연간 30억 바트(한화로 약 1,020억) 이상의 돈을 들여 화학제제(화학비료, 농약, 호르몬제 등)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경작을 위해 이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직접 투자로써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투자에 비례하여 수확량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만성적인 손해를 보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용되는 화학제제는 토양, 물 그리고 농산물에 축적되는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수출품들은 무역 파트너에 의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물질을 사용하는 새로운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기농 식품은 개발될 수 있고, 안전한 식품은 생산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교인과 농민들이 화학제재대신에 유기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집중하여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기물질을 사용하는 농민들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공정한 시장 체제를 마련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농민들을 강력한 그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향후 십 년간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은 품질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역 시스템도 품질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유기농업은 화학제재의 사용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기농업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생태계, 토양, 물, 숲 그리고 사람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상보적으로 공존하며, 자연과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데 자연은 인간으로 하여금 동산(Garden)을 돌보고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 태국 농민의 생산방법과 문제점

현재 태국 농민의 생산방법은 독점과 자본주의의 형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망라하는 소위 '농업계약(Agricultural Promising)'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농민에게 씨앗, 비료, 약품, 호르몬제 등을 제공해주고 수확물은 단작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생산물을 거두어들인 후에 그들은 비료, 약품, 호르몬제 등의 값을 제합니다. 다 제하고 남는 것이 농민의 것입니다. 이들은 농사의 전 과정에

서 인간의 생명과 가축 및 환경에 해를 끼치는 화학제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민은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농민은 계속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관심사는 생산량에 초점을 맞춘 단작재배 이후 증가한 산림 면적의 파괴입니다. 상류의 높은 지대에서 화학제재를 사용하면 강 유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건강문제는 화학제재를 사용한 생산자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 혈액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을 늘리려는 방법으로 기른 채소나 가축을 먹음으로써 그들의 체내에 화학물질이 축적되었을 것입니다. 농민들은 소비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농업 생산 체제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징조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자(농민)와 소비자, 생태계와 환경에 무서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CCT의 사회개발 및 사회 단위의 역할, 무엇을 해야 할까?**

### **1) 유기농업의 실천**

2012년에, 지속가능한 농사공동체(Sustainable Farming Community)와 연계하여 CCT의 사회개발과 사회단위는 1, 2, 7, 10 및 19 교구(church sector)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을 3박 4일간 훈련시켰습니다. 5개의 그룹에서 14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교육은 에덴동산을 돌보았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창 3:15 참고), King's Sufficiency Theory 에 의한 농업의 회복,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화학제재를 사용하지 않은 채소의 사용), 토양 비옥도의 향상, 유기질 비료 만들기, 해충 퇴치법, 자연호르몬제 만들기, 장기적인 면에서 경제 자립 강화를 위해 시장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할뿐 아니라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여 가축의 먹이를 생산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2013년 9월과 10월에는 3개 이상의 그룹에서 40명이 참가하여 교육을 계속하였습니다. 4, 5, 7 및 11 교구에서 온 그룹이 타겟(target)이었습니다.

## 2) 지역사회를 위한 그룹 네트워킹 및 공정 시장 체제를 추적하고 만들기

유기농업 교육 후에, 우리는 후속작업으로 교육받은 사람의 가정을 뒷받침하고, 실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사공동체모임’(Institute of Sustainable Farming Community)와 함께 자극을 계속 주었습니다. 교회,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룹을 만들고, CCT의 유기농업 그룹의 망(網)을 짜고, 이웃에게까지 확장하였는데 여기에는 공동체, 벼룩시장, 중앙시장 내에서 공정한 유기농 시장 체제를 확립하는 것과 유기농산물 및 지역교회의 생산물을 필요로 하는 CCT산하의 단위와 기구들을 연결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지역 교회의 생산물 지원 및 향상을 위한 작업

- 지역 교회 생산물의 향상을 위한 웹 사이트 만들기.
-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벼룩시장 및 지역공동체 시장 만들기.
- 지역 교회를 위한 생산물 유통센터 만들기.
- 생산물 향상을 위한 전시회 및 이벤트에 참가하기.